



2월 9일

두 눈을 살짝 떠 보아요.

콩콩콩~

아, 향기가 나요.

보들보들 손끝에 부드러운 것이 닿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짠! 빛이 밝아지자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부드러운 풀잎과 꽃 향기가 가득한 꽃밭이에요.
빛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생각하는 아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성경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왔단다. 남우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지?"

"음~, 불부터 켜요."

불부터 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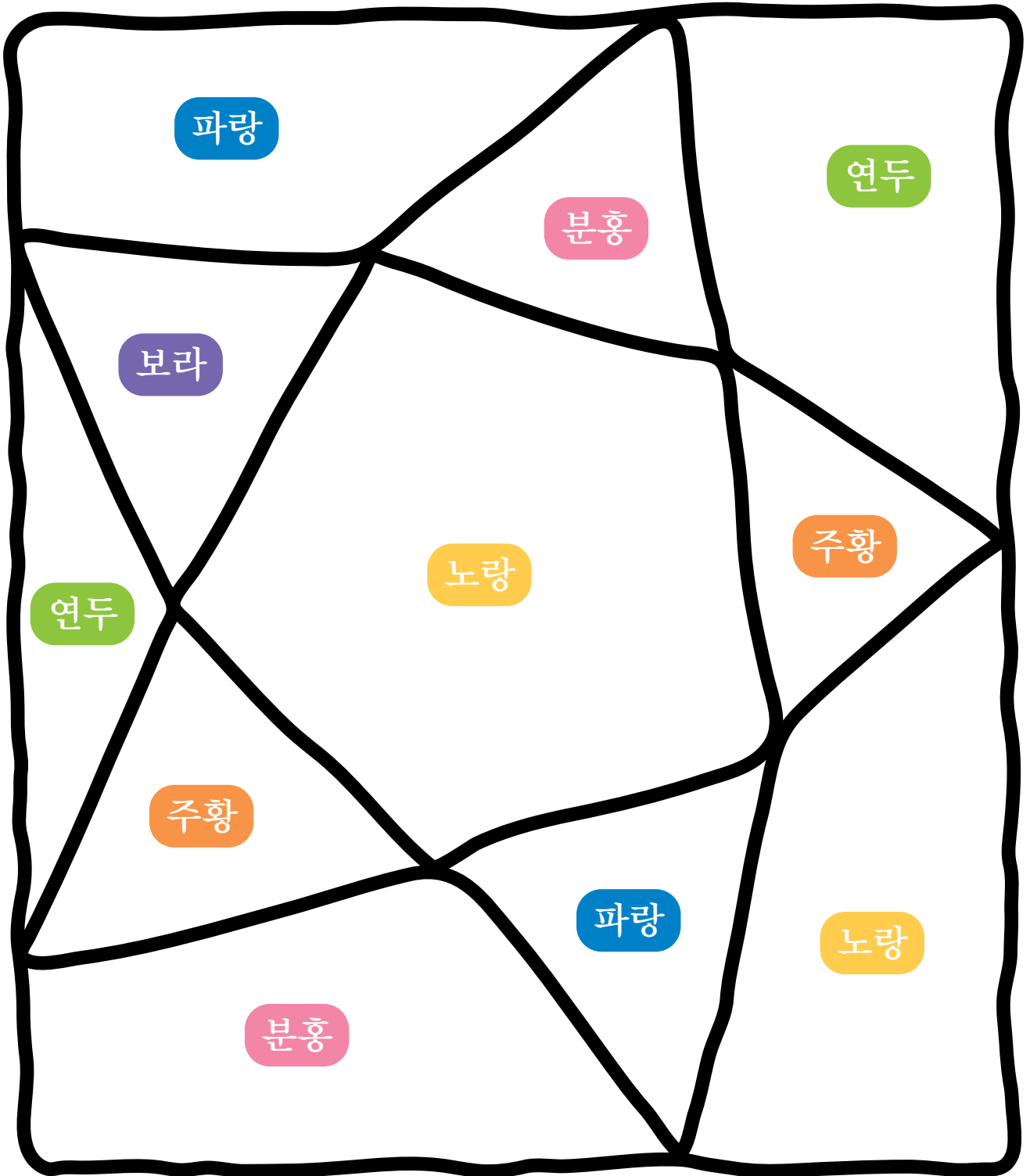


"그래, 하나님께서도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단다.
빛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무, 꽃, 동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함께 밖에 나가서
알아보기로 하자."



즐거은 활동

그림조각을 예쁘게 크레파스로 색칠해요.
그리고 검정색 크레파스로 덧칠해요.
뽀족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